

행당 2-1지구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

지난 9월 30일 서울 성동구 행당 2-1지구에서 집단적인 성폭력이 일어났다. 9월 30일 새벽 철거 전문시공업체로 악명이 높은 적준에서 고용한 철거강패 200여명이 들이닥쳤다. 철거강패들은 70대의 노모와 젖먹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조차 성폭력을 자행했다.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경찰과 구청은 이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그 중 몇몇은 '구경'을 하러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다. 주민을 위한 치안, 주민을 위한 행정을 책임진다는 공공기관은 범법을 방조하고 묵인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은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총련 여학생 성폭력사건때 전경들이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시위나 철거현장같이 물리적 폭력들이 난무할 때 여성을 통제하는 방법은 항상 '성폭력'인 것이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철거강패들은 주민들을 건물철거의 장애물정도로 취급했다. 강패들은 주민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하나 죽이는 것쯤 아무 것도 아니야라며 그들은 주먹과 방망이, 발굽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패들은 주먹과 방망이, 발굽으로 너무 쉽게 쓰러져 버리는 여성들을 더욱 흥미롭게 진압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선택했다. 폭행이 잠잠해지자 어리둥절해진 아주머니는 몇몇 강패들이 상의를 벗는 것을 보고 말을 잃었다고 한다. 그 다음 그들이 한 것은 매우 심한 욕설이었다. 이어 그들은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70개 노모의 음부를 폭행하고, 젖먹이를 업은 여성의 가슴을 비틀었다.

아주 건장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철거강패들은 자신들의 주먹이 여성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식었던 것이었다. 단순히 철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면 여성들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적으로 다수이고 체력적으로 단련되어 있는 그들의 폭행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성폭력을 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것이 더 빨리 진압되거나, 더 효과적이거나 그런 계산을 강패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보고 배운대로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에게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떠올린 것이다.

우리는 철거지역, 시위현장, 전쟁터와 같은 극도의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 쉽게 짓밟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여성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폭력을 인식하고 있다. 전쟁국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강간의 공포와 파업과 시위현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행등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무수하다.

이같은 만행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만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적합한 처벌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성폭력을 진두지휘한 김영배(본명:김윤배), 임화영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
- ▶적준 철거회사 사장 정숙종을 즉각 구속하고 적준을 해체하라!
-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해임하라!
- ▶검찰은 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관련법규를 적용하여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외대 왕산 총여학생회
시립대 총여학생회
덕성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